

인천상륙작전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

장윤정*

Cinematic Place Representation of Korean War Films with Emphasis

Yoon Jeong Chang*

요약 :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을 살펴보고자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 두 편을 분석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에 주둔했던 주체가 변화하는 전환점이자, 한국사회 이데올로기의 분기점으로 정립된 큰 사건이었던 만큼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사례로 한국 영화 ‘인천상륙작전’(1965)과 북한 영화 ‘월미도’(1982)를 선정하였다. 제작자가 다르다는 것은 제작의도의 차이를 말한다. 제작자가 선택한 재현 대상을 밝혀 영화 속 장소를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상륙군 관점에서는 승리를 기념하는 스펙터클을 보여주었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전사자들을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제작자는 실제 장소를 의도에 맞게 선택하고 표현하기에 장소 내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영화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장소 외부를 표현한 영화 속 장소는 새롭게 미장센으로 공간을 연출한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사로 전달되는 언어 재현 장소는 장소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 관계를 파악하게 한다.

주요어 : 영화지리학, 장소 재현, 영화 속 장소, 언어 재현 장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places in the Korean War films on the event of 1950 ‘Incheon Landing’, focusing on the place representations. ‘Incheon Landing’ of September 1950 provided a turning point for the Korean War, and the event can be interpreted totally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and the North Korean perspectives. Two films on the same event of the ‘Incheon Landing’ - a South Korean film, “Incheon Landing Operation”(1965), and a North Korea film, “Wolmido”(1982)- were selected as major sources of analysis and comparison. each director has different intentions. One film was taken from the landing army’s viewpoint, whereas the other film was taken from the defender’s viewpoint. As a result, one film emphasized the battle as a spectacle of glorious victory from the landing army’s viewpoint, while the other film glorified those soldiers killed in the battle as heroes from the defender’s viewpoint.

Key Words : film geography, place representation, cinematic place, language representation place

1. 서론

일찍부터 지리학자들은 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형태와 형성과정, 의미부여를 다루어 왔다. 이러한

지리학적 접근이 장소에 반영되어 경관 개념에 영향을 준다(Sauer, 1974, 321). 또한 지리학자들은 경관이나 지역을 연구하는 전통에서 나아가, 문학, 미디어, 웹 공간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ina61@snu.ac.kr

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지리학과 접목시킨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영화 전개에 따라 익숙해진 장면과 기억에 남는 장면의 배경에는 장소가 있다. 영화를 보며 관람자는 낯선 장소를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때 전달되는 영화 장소 메시지¹⁾는 영화 스토리에서 만들어진 지리적 특성에 맞춰 관람자에게 새로이 각인되는 결과물이다. 물론 제작자의 선택과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영화 공간(reel space)²⁾은 제작자로 하여금 관람자에게 장소 이미지³⁾를 형성하게 한다. 영화 경험으로 얻게 되는 영화 속 장소는 관람자의 심상이 반영된 것이다. 한 편의 영화에서 관람자의 뇌리에 남은 장면에 공유된 장소 인식과 공감으로 얻게 되는 장소 적응이 함께 누적되어, 장소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제작자의 시선과 관람자의 눈높이가 만나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된다.

영화상의 장소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시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지리학에서 재현 또한 상징, 이미지, 대상 등과 관계있다(Dubow, 2009, 645). 나아가 '장소 재현'은 장소를 점유한 시기와 연관되어 장소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한다(Duncan & Ley, 1993). 예로, 한국 영화 '인천상륙작전'(1965)의 인천과 북한 영화 '월미도'(1982)에 나온 인천은 각각 다른 관점의 이야기 전개에 이용된다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영화에서 장소 재현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장소 재현의 주제, 시대, 제작참여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된 원인으로 포지셔널리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영화제작에서부터 관람에 이르기까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영화 속 장소 재현의 사례를 분석하여 영화 지리학의 연구대상을 밝히고 논점대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때 3장에서는 각기 다른 장소 재현의 사례로 제작자에 따라 장소 재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선택하였다. 4장과 5장에서는 영화의 주요 줄거리를 차지하는 두 경우를 통해 그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영화를 신(scene)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90분의 상영시간을 245개 신으로 나누었다.

2. 영화 속 장소 재현

장소 재현은 특정 시기 장소에서 일어난 내용을 재현한 사례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장소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장소는 의미 있는 위치로서 입지, 현장, 장소감으로 대표되기에(Cresswell, 2004, 7) 재현 결과에서 대상을 재현한 주체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주체에 따른 장소 선택과 상징화된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상의 장소 재현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시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영화지리학 논의에서는 장소의 재현에 대해 (1)시각 및 청각적 형태의 정보를 경험적으로 실행하며 (2)장소, 사람, 사건 등의 지식을 생산하는 정보를 정리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3)직접적 경험 너머 세계를 상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Lukinbeal, 2009).

영화 속 장소는 제작자나 감독의 관점에 의해 구현되는 실제장소⁵⁾에서 등장인물의 정체성이 재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영화 속 장소는 영화지리학(film geography)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대상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화상의 재현을 둘러싼 장소 및 경관 연구가 지배적이었고, 이는 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대상인 장소 연구⁶⁾와 공간 분석⁷⁾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논의는 영화지리학 일반 이론에 대한 Aitken (1994), Cresswell(2002), Lukinbeal *et al.* (2006a)과 관람자의 장소를 분석하는 Jancovich(2003)이 대표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화지리학 저서는 대부분 관람자의 관점에서 영화에 표현된 장소와 공간을 해석하거나 영화가 만들어진 제작지역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었다.

이러한 연구는 영화가 수신된 이후 영화를 텍스트로 이해하고 분석하였기에, 영화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는 의미 생산 보다는 영화가 지리적 영역에서 어떻게 등장인물을 묘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제작여건을 반영하여 생산되는 과정에서 분석될 수 있는 장소 재현의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영화에 표현된 장소의 재현

오늘날 영화지리학에서는 묘사적 측면보다 영화상의 장소 재현을 강조한다. 장소의 영화적 재현과 실제 장소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한국에서는 주로 영화 속 도시에 대한 설명(구동희 등, 2008)과 영화 속 지형에 대한 서술(심승희 등, 2007)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접근으로 한국 영화 사례에서는 국내의 도시에 대한 해석과 자연환경을 다루었고, 국외의 영화 경우에는 해외 도시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지리학적 관점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영화지리학에서는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고, 비교연구에서는 지역 단위, 공간적 격차의 연구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영화지리학의 주요 이슈는 크게 네 번에 걸쳐 다루어졌었다. *Journal of geography*(2002년 발행 101권 6호)는 영화의 학습 응용과 영화 제작을 살펴보고, *GeoJournal*(2004년 발행 59권 4호)은 지도의 영역, 경계에 대한 상상, 변증법적 경관 등으로 연구관점을 제시하고 북미 지역 영화를 분석하였다.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2005년 발행 23권 1호)는 영화 속 경관, 장르를 사례로 살펴보고, *Geopolitics*(2005년 발행 10권 2호)는 지정학적 이해와 국가 정체성, 경계와 영역 논의 등을 다루었다.

영화지리학 초반기에 *Journal of geography*에서는 영화제작에 중점을 두었다. Gold(2002)는 스코틀랜드의 전쟁지역으로 알려진 Culloden에 대한 세 편의 영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실제 장소로도 이 지역이 알려져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구성으로서 성지참배지이기 때문이다. 세 편의 영화는 제작시기의 사회적 기억과의 연관성에 따라 장소 재현 주체에 차이를 보인다. Lukinbeal(2002)은 할리우드 영화제작이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북미 영화가 성장해 오기까지의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GeoJournal*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한다.

Craine(2004)은 영화 속 장소의 싸움터를 아비투스라고 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영화 속 장소에 변화에 움직이는 행위자인 등장인물을 분석했다. Holmes(2004)는 오래된 서부에서부터 새로운 서부를 영화에 표현하는데 있어 실제 장소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장소 내부(촬영지에서 영화 속 장소로), 장소 외부(새로이 만들어진 영화 속 장소), 재현되지 않은 장소(지정학적 실제성)에 까지 영화를 통한 재현적 실행을 다루었다. Mains(2004)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남부를 다루면서 문화적 경관을 채택하고 이를 배치하여 분석하여 재현됨으로써 얻는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사이공간의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이전 논의와 달리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에는 영화지리학만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개념 어휘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속 경관으로 표현된 Sauer의 경관 개념이 있다. Lukinbeal(2005)은 영화에서 보이는 경관이 잘 정의된 공간, 시간과 장소의 조직, 그리고 은유로 '경관의 유용한 유사성'을 풀이하였다. 또한 그는 16세기 후반 극장이 여행과 지리가 결합되어 사용되었던 시기로 거슬러가 극장으로서 경관이 지배적인 은유를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Dando(2005)는 국경 영화의 공간과 장소로부터 경관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국경 거주자의 역할(황야를 개척해 정원으로 다듬는 가족으로 대표되는 강한 남자, 아내와 아이)을 강조했다.

*Geopolitics*에서는 지정학적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무대, 국가정체성, 분쟁지역 등을 소재로 하였다. Dixon(2005)은 3세계 영화들이 1세계 영화들의 서구 입장을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포지션으로 교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영화 속 장소를 분석하는데 있어 어떻게 카메라 앵글을 사용하느냐가 주제의 사회-공간적 차이를 강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영화 속 장소는 제작지역들의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반영함은 물론 영화 속 공간에 표현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하여금 포지션을 갖게 한다.

2) 영화지리학에서의 장소 연구

Aitken(2006)은 영화가 제작된 장소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면서 정치경제적인 흐름에서 시작되어 영화가 촬영된 실제 장소와 영화에 표현된 영화 속 장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게다가 그는 영화 관람과 영화 제작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영화 경험에서 받아들이는 실제 장소 의미와 제작·촬영·배급하는 스튜디오와 영화 산업지역을 함께 다루었다. Stroper(1989)는 미국 영화 산업을 대상으로 유년적 문화를 다뤘고, Scott(2004)은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생산 및 홍보 배급으로 얻은 수익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영화 촬영지를 관망하는 관광객을 모으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Scott, 2005).

북미 영화 도시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토론토와 밴쿠버는 재현적 공간으로, 제 이의, 제삼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도시들에는 텔레비전 프로덕션 센터가 입지한다.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은 산업적 특성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지리적 환경과 미학적 이유 때문에, 토론토와 밴쿠버는 경제적인 혜택과 저비용 때문에 선택되었다(Lukinbeal, 1998). 또한 현지 촬영지에 대한 연구에서 Lukinbeal(2006b)은 미국 남북전쟁기의 노스캐롤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Cold Mountain'(2003) 촬영지로 루마니아를 주목하였다. 루마니아는 경제적 이점과 지리적 사실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촬영지는 임금 절감 효과와 거친 날씨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후기 구조주의적 접근은 영화 촬영지나 영화 산업 밀집지역과 영화 속 장소가 다르다는 '실제 장소-영화 속 장소'의 이분법적인 공간화를 극복하였다. 영화 속 현실은 재현된 결과물로 받아들여져 모방된 현실 외의 실제 장소도 포함한다. 실제 장소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현되고 각기 다른 포지션으로 관람자에 수용되어 상상 속의 실제 장소를 만들어 낸다.

영화지리학은 촬영 및 제작지역 연구, 영화 장소 연구, 영화주제 연구, 감독 및 장르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실제 장소 연구로부터 영화 속 장소 연구로의 진행으로 보인다. 왜 특정 장소를 두고 각기 다른 영화가 다른 주제를 표현하느냐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 특정 장소는 각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영화에 나타난 장소 재현의 차이를 통해 실제 장소 선택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는 재현의 차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영화 속 장소는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의 무대로서 장소 자체의 특성, 사건 배경의 원인, 장소와 개별주체인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논의 될 수 있다. 이는 영화의 성격에서 비롯된 지역정체성, 영화에 표현된 등장인물들의 배경의 의미, 영화에 반영된 이데올로기가 해석된 장소의 특성, 제작자 세계의 뚜렷한 작품에서의 특정지역 묘사 등이 반영된 결과 등이 있다(표 1).

영화 장소의 연구는 영화 제작 지역 분석, 실제 촬영지로부터 영화 속 장소에 대한 제작자 포지셔널리티의 접근, 영화 속 장소의 행위자 해석에 대한 공통 주제와 장르 분석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표 1. 영화지리학에서 장소 연구

영화지리학	연구 주제	저자
제작 지역	미국영화 제작지역 캐나다 촬영 미국영화	Lukinbeal(2002), Lukinbeal(2004) Mathews(2010)
장소	장소의 문화정치 등장인물 관계	Rose(1994) Holmes <i>et al.</i> (2004), Craine(2004)
주제	정체성 내부 식민지 기상현상	Aitken(2003), Smith(2002) Caprotti(2009) Monfredo(2010)
감독·장르	감독 장르	Gold(2002a), Alderman(2002) Farish(2005)

다. 결국 영화 속 장소 재현에서는 무엇이 미장센⁸⁾으로 묘사되고 관람자는 그 묘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사실주의 또한 그 특성상 생산과정을 숨기고 귀화시키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을 보인다(Lukinbeal, 2005, 17).

영화 속 장소의 주제 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영화 속 장소는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선적으로 영화 속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체성 파악을 위해 이해되는 문화정치는 문화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명제 아래 인종, 사회적 성, 장애와 같은 사회문화적 차이를 내포한 정체성 범주에서 권력관계의 결합을 받아들인다(Hubbard, 2004). 한편, 차이와 관련하여 Derrida는 두 정체성의 다름을 말하고 이 때 정체성이 분리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Doel, 1999, 53). 이러한 영화 속 장소에서의 정체성 차이는 동일한 장소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재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도출하게 도움을 준다.

둘째, 영화 속 장소에는 제작자의 문화정치적 성격이 영화에 반영된다. Rose(1994)는 두 영화를 사례로 지역 대표성을 살펴보았다. 사례는 1970년대 이스트런던을 소재로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만든 작품과 지역 축제에서 독립 영화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는 지역 미디어가 사회적 집단의 헤게모니 장악과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영화 속 장소에는 관람자의 정체성 구성이 포함된다. Aitken(2003)은 수업에서 정체성 구성을 이해하는 방법론으로 영화를 채택한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인종주의, 정체성, 가족구성원 간 관계 등이다. 사례에서는 로스엔젤리스 인종 지리학으로서 공간, 지역사회, 가족, 세계화된 식민지 정체성을 강조했다. 정체성 수업은 자기성찰과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영화 속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분석은 등장인물을 표현방식에 따라서 영화 속 장소에도 영향을 끼친다.

넷째, 영화 속 장소는 재현의 정치가 표현된다. Smith(2002)는 지리적 지식의 생산에서 비서구 문화의 차이에 대해 영화를 사례로 들어 재현의 정치를 살

펴보았다. 뉴질랜드 마오이에 관한 영화가 사용된 수업 사례를 통해 이러한 영화가 재현의 정치에 대한 교재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영화 속 장소는 감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Alderman and Popke(2002)는 감정 공유에서 유머가 복합적 견해로부터 주관적 내용을 갖는 예로, Michael Moore의 영화를 사례로 들었다.

3. 인천상륙작전의 전개

두 영화의 소재로 다뤄진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기술하여 영화 속 재현의 비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전쟁⁹⁾은 1)전쟁 발발(1950년 6월 25일)~낙동강전선 2)인천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의 참여(1950년 9월 15일) 3)중공군 참전(1950년 10월 19일) 4)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으로 시기가 나뉜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93일 만에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연합군이 북한군에 의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있던 전세를 역전시킨 계기가 된다.

1950년 6월 29일 맥아더(MacArthur, Douglas) 장군이 한강변을 시찰하며 미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판단한 후 7월 초부터 작전계획¹⁰⁾을 세우기 시작했다. 7월 첫 주 맥아더 장군이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해안지역을 상륙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이름으로 인천상륙계획, 군산상륙계획, 주문진상륙계획 등 3개안을 준비했다. 인천항로는 비어수로(flying fish channel)로서 협소하고 대규모 함대가 정박하기 어렵다는 자연적인 난제가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인천-서울 간 접근성과 북한군 교통로 차단에 용이함을 주장했다. 결국 인천에 대한 방비가 허술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상륙작전은 기습에 성공한다(국방군사연구소, 1995; 김홍영, 2009; 마를다, 2010).

서해에서 인천으로 접근하는 바닷길은 비어수로와 동수로(Eastern channel) 두 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 두 수로는 팔미도에서 다시 합해진다. 팔미도는 두 수로와 협소한 염하(Salt river) 끝자락에 위치하여 기뢰에

쉽게 봉쇄 될 수 있는 곳이다. 해변에 이르면 방파제, 부두, 천연염전, 항구에 치솟은 절벽과 언덕들—월미 언덕(Radio hill), 천문기상대언덕(Observatory hill), 영국영사관언덕(British consulate hill)—이 펼쳐지고 이 언덕들에 오르면 인천지역을 전망 할 수 있기에 상륙작전에서 이 고지들을 점령하는 것은 중요했다(마롤다, 2010, 87).

본격적인 인천상륙작전 첫 단계에는 15일 새벽 월미도 상륙이 이루어졌다.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연합군 고속함모부대의 함재기들이 들어서며 공중전과 해상전이 함께 진행되고 월미언덕 정상에 연합군은 성조기를 계양하며 소월미도를 포함한 월미도를 얻는다. 이 언덕은 참호, 동굴, 포좌로 덮여있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다. 월미도 서쪽 녹색해안 공격 후 썰물로 갯벌이 드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월미도 북쪽 적색해안을 통한 월미도-인천 간 방파제 공격을 준비했다. 이 때 해안의 두 언덕(천문기상대 언덕, 영국영사관 언덕)과 월미도 남쪽까지 에워싸는 것이 중요했다. 연합군은 해안절벽에 수류탄을 투하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륙을 시도하였다(Heinl, 1968; 김홍영, 2009). 녹색해안과 적색해안 확보 후 조류를 이용하여 청색해안을 확보하고 마침내 인천 남부까지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4.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장소의 선택

영화 속 장소의 선택은 영화에 표현된 실제 장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례 영화는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 하였기에, 영화 속 장소의 선택에서 밝혀진 이유는 제작자 포지셔널리티(positionality)¹¹⁾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재현시기가 중요한 것은 인천상륙작전이 한국전쟁에서 전환점이었던 주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기 다르게 차용되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써, 영화에서 표현된 장소는 재현 시기가 갖는 의미에서 현재의 장소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도입에서는 사실성을 구현하고자 제시되는 실제

장소가 각각 영화에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상륙작전이 낙동강에 몰려있었던 전세를 바꾼 사건으로 상륙결과에 중점을 두어 영화화 하였다. 이에 반해 방어군 관점에서는 재현시기를 주목하여 인천에 점유주체가 바뀌는 시점에 대해 인천상륙을 방어했던 소재를 영화화 하였다.

1) 영화 속 장소의 도입 위치

각 영화에서 시작은 도입 위치가 다르다.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 전선에서 하천 다리 위로 거슬러 내려오는 병사들로 시작된다. 반면 전쟁의 치열한 접전지역인 낙동강과 거리가 있는 ‘월미도’는 전쟁의 포화가 거기까지 미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 단지 영화 속 월미도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보초를 서는 병사들로 시작한다. 상륙관점에서는 상륙작전 개시원인을 밝히는 것이고, 방어군 관점에서는 서해안의 경계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1) 상륙군 관점의 낙동강 전선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낙동강 전선이 수세에 몰려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정찰부대가 지켜본다. 심야 야산에 잠입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잠깐 등장한다(신 5-8). 그리고 나서 연합군작전지부에서 고뇌하는 경대령의 모습이 비춰지고 다시 심야 잠입(신 9-1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경대령의 지시로 잠입이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이어 총격전이 일어나 전투가 개시되었음을 알린다(신 11-13). 급기야 암전으로 전투의 종국에 이르게 된다(신 14). 무덤을 배경으로 전사자들에게 애도하는 장면이 나온다(신 15-17). 영화에서 표현된 전장지는 낙동강 전선에서도 강이 흐르고, 전투가 지연 상태에 있었던 영산지역으로 추론된다.¹²⁾

낙동강 전선은 치열한 접전지점으로 전면전이 이루어졌었다. 전선은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파죽지세로 낙동강 남동쪽으로 몰리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고정간첩 미혜와 양대위가 만나는 장소로 전선 가까이의 야전병원이나 나온다. 그리고 연합군작전지부의 경대령을 보

여주고 낙동강 전선이 주시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인천상륙작전’에서 낙동강 전선은 북한군 부대 동태가 파악되고, 임시정부 부산과 공간적 격차 사이에서 소강된 낙동강 전장, 야산의 야전병원, 부산의 연합군 작전지부로 도입을 이끌어낸다.

(2) 방어군 관점의 인천

‘월미도’에서 전반부에 낙동강 전선이 언급된다. 월미도에 머물러 있던 부대원 중의 한 명인 취사원이 휘발유를 얻어 쓰려고 하며 웅백을 깨우며 말을 건다. 이때 웅백은 “기동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하겠소?”라고 말하자 취사원은 “흥, 기동명령은 무슨 기동명령! 전선은 저 낙동강에 있네.”라고 대답한다. 그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월미도에 모인 부대원들은 전쟁이 낙동강 전선에만 치중되어 있어 월미도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화 속 월미도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천상륙 개시를 고의적으로 극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세세한 설명에서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것, 병원에 있는 병사에게 휘발유 부탁을 한다는 것, 문화부중대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 등에서 상륙이전 영화 속 월미도가 처한 상황을 암시해 준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 번째, 낙동강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월미도는 인천 외곽으로 방어진점에 속해있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두 번째는 월미도가 인천대대에서 후퇴를 염두에 둔 경계지역이었음을 고려하게 한다. 그로 하여금 월미도가 영화 속 장소로 개연성을 가질 수 있었고 장소의 내부적 특성을 갖추게 된다.

인천에 위치한 월미도는 연합군의 첫 상륙지이었던 만큼 그 참상이 참혹하였다.¹³⁾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인천에서 약 삼개월간 주둔했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 월미도라는 동일한 장소에 대해 한국과 북한 양측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¹⁴⁾ 이로 인해 월미도는 영화 속 장소로 구현되는데 주요 배경으로 선택되었을 수 있다. 상륙작전은 월미도뿐 아니라 넓은 해안에 걸쳐 전범위에 걸쳐 이루어 졌었다. 영화 ‘월미도’에서는 지원부대 6중대가 시흥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연합군이 청색해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¹⁵⁾

2) 영화 속 장소의 입지 표현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던 시점에 상륙을 위해 들어가는 길목에는 팔미도가 있었다. 당시에는 인천항에 이르는 수로가 협소하여 대규모 함정이 진입하기에 불가능했고, 북한군이 수로에다가 기뢰마저 부설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었다.¹⁶⁾ 게다가 인천해안의 조차는 10미터 내외로 간조 시 해안에는 2~5km의



그림 1. 팔미도와 팔미도 등대

광대한 갯벌지대가 형성되어 상륙주정 및 상륙함 해안접안이 곤란하였다(엄섭일, 1995, 397). 더욱이 인천으로의 진입이 어려웠던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두운 밤을 틈타 대형 군함과 상륙함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팔미도 등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했다.

팔미도는 동수도와 서수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배의 입도를 도와준다. 이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인천 일원의 다른 섬과 달리 인천 방향을 조망하게 해 준다. 그래서 첩보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인천상륙작전사건조사 수행함에 있어 팔미도 등대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연합군 사령부는 9월 14일 자정에 등대의 불을 점화하라고 기동부대 지휘부에 지시하였었다(리트먼, 2006, 90). 진입신호인 등대의 점화에 맞춰 전함들이 물으로 들어서게 했었던 만큼 팔미도는 작전의 성공을 가름하는 큰 잣대였었고, 작전의 주요경로임을 알게 해준다.

(1) 상륙군 관점의 팔미도

‘인천상륙작전’에서 팔미도의 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팔미도는 내부와 외부로 보여준다. 시흥 전장에서 외부 환경으로 바다 위 팔미도가 나타나고(신 157), 바다 위 함선이 나타난다(신 158). 이후 내부 팔미도에 등장인물이 들어서고(신 159), 팔미도 등대 안에 점화를 준비하는 개별 주체들이 활동을 한다(신 160). 다시 외부 환경에서 바다 위 군함과 팔미도와 교신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신 161), 내부 환경 팔미도 등대 안에서 해당주체가 등대를 점화한다(신 162). 영

화 속 장소 팔미도를 구성하는데 내부 환경 팔미도 등대, 팔미도 절벽이 나오고, 외부 환경으로 바다 첩보부대 진입과 군함이 등장인물의 이동과 교류를 분석 가능하게 한다.

또한 팔미도 신에서는 팔미도가 주 배경이 된다. 팔미도라는 영화 속 장소는 각기 다른 관점이 팔미도 등대 점화라는 특성을 부각시킨다. 여기서는 바다에서 팔미도에 들어가며 첩보부대가 표현되고, 팔미도 등대 안에서 무전 신호를 기다린다. 그리고 사령부, 군함으로의 상륙개시를 알리는 전달에 따라 팔미도 특성이 나타난다. 실제 인천상륙작전에서는 팔미도에 미군장교와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는 한국군인만이 표현되었다. 외부 연합군사령부에서 팔미도로 이어지는 작전에서는 위계적인 메시지 전달로서 팔미도 입지의 중요성을 표현 해 준다.

(2) 방어군 관점의 팔미도

팔미도는 두 수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요지로서 인천해역에서 주요 지점이자 월미도와는 떨어져 있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 방향에서 수로의 놓인 길이지만, ‘월미도’에서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경로로 각기 다르다. ‘월미도’에서는 은폐호로 복귀하려는 민국이 방파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팔미도를 돌아들어 오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한다. 어려운 시점에서 길을 찾아 돌아왔다는 그의 에피소드는 마지막 전투가 목전임을 알려준다. 즉, “쪽배를 타고 팔미도 쪽으로 나가서 놈들의 경계를 뚫고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라는 그의 대사에서 팔미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

표 2. ‘인천상륙작전’ 팔미도 신 분석

신 번호	영화속 장소	신 내용
157	팔미도	멀리서 바다 위 팔미도
158	인천 전장	바다 위 배 첩보부대
159	팔미도	배가 섬에 도착 후 절벽을 오름
160	팔미도 등대	등대 안에 들어섬
161	인천 전장	바다 위 군함 레이더
162	팔미도 등대	등대 점화

표 3. '월미도' 팔미도 신 분석

신	영화 속 장소	내용
198	은폐호	민국이 들어옴
199	은폐호	민국이 죽은 취사원의 안부를 물음
200	바위기슭	죽은 이들 이름이 적힌 비석을 바라봄

았음을 나타낸다(신 198-199).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실제 인천상륙작전에서 등대가 비어있었다는 사실에서와 달리 미국 영화 '오! 인천'에서처럼 북한군의 방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 일 수도 있다.

'월미도'(1982)가 제작된 시기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교체시기에 공산 이데올로기 강화가 이루어졌었다. 영화에서는 '숨은 영웅 찾기'에 따라 잊혀져 가는 과거의 사례를 찾아 이를 의미화하고 영웅으로 기록함으로써 체제이념을 확고히 하려는 과정이 수반되고 있었다. '월미도' 또한 그 연장에서 모두 죽으면서까지 조국애로 상륙을 늦추었다는 관점으로 영화를

표현하였다. 북한에서 팔미도에 대한 의미를 보면, 마지막 부대원이 월미도로 돌아온 직후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함께 모여 망자들을 회상하며 전의를 다진다(신 200). 결국 '월미도'의 팔미도는 대화에만 표현될 뿐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팔미도 신에서는 망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 앞에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이로서 마지막 단계 상륙을 앞에 두며 나머지 부대원들을 영웅화 하게 된다.

그림 2에서 화살표는 인천상륙작전의 작전경로이다. 녹색해안을 시작으로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으로 접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인천상륙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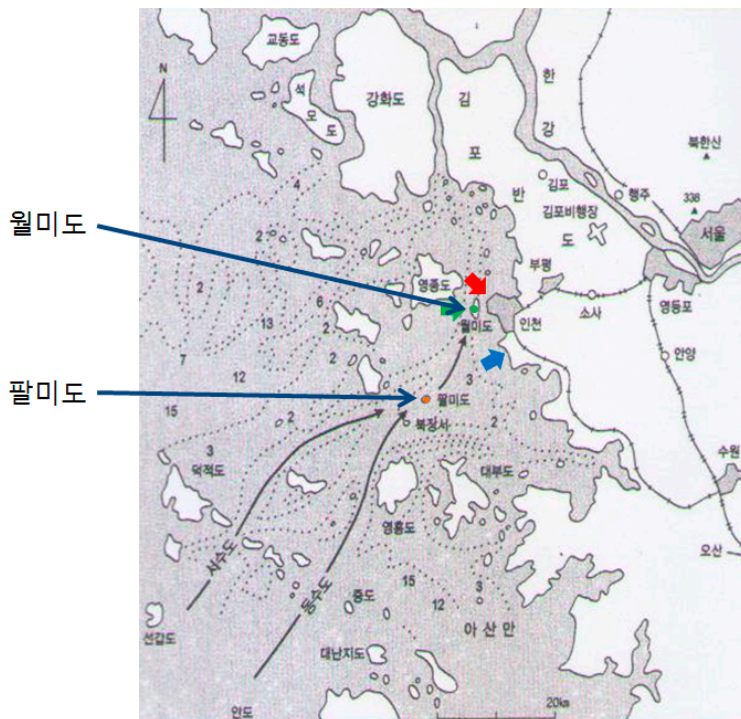


그림 2. 인천상륙작전에서 인천해역도
(출처: 김홍영, 2009: 92)

에서 구현한 진입 경로를 보여준다. 물론 팔미도를 돌아왔다는 것은 '월미도'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던 연합군의 청색해안으로의 출격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늦게 작전이 수행되었던 인천에서부터 월미도 동남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월미도'의 팔미도는 심야에 등장하고, 다음에 이어 영화 속 월미도에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 이러한 시각적 격차는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이후를 설명 해 주는 것으로 연합군이 지나간 행로까지도 방어하려는 의지를 표현 한 것이다.

5.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장소 재현

인천상륙작전 실제 장소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재현 여부에 따라 영화 속 장소로서 중심과 주변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상륙작전을 재현한 영화 속 장소에서 비어수로에 있는 팔미도, 첫 상륙지점 녹색해안 월미도, 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청색해안 등이 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당시 어느 중군기사가 찍은 인천상륙작전 현장 사진 속에는 연합군이 적색해안의 방파제를 넘어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다. 진입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있어 수륙 양용정을 사용한 해상으로 들어가는 녹색해안, 청색해안 보다는 멀리 배를 정박하고 조그만 보트를 타고 사다리를 이용해 적색해안을 직접 군인들이 방파제를 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제작자가 어떤 포지셔널리티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에서 재현하였느냐에 따라서 영화 속 장소가 다르다. 국방부 후원 영화¹⁷⁾인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 진입하는 움직임과 동일시되는 상륙군 관점이 반영되어 영화 속 장소가 배열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긍정 인간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고정적인 영화 속 장소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반복 등장한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는 영화 속 장소의

선택에 실제 장소를 사용했다. 장소의 재현은 동일한 장소를 선택하여 재현하는 과정에서 제작자 포지셔널리티가 반영되어 각기 다른 표현으로 영화 속 장소를 활용한 것이다. 영화 속 장소에 표현된 바에 따라, 영화 속 장소에는 재현의 정치가 나타났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군을 표현하기 위해 작전을 준비하는 연합군작전지부가 주시하는 공산세력이 단편적으로 묘사된다. 이 때 전쟁의 시작은 서로 관망하여, 자유진영에 북한 측의 내부간첩을 보냄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고, 한 편에서는 치열한 전투를 겪는다. 즉,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전쟁에도 피난지에 뺏어있었던 공산당 세력과 그로 인한 갈등, 그들의 내부모순으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상륙부대는 단계적으로 준비된 작전계획을 실행하며 하늘과 바다에서 육지로 진압하여 들어오면서 경쾌한 행진곡이 흘러나온다.

'월미도'에서는 고립된 섬 월미도를 재현하면서, 그 섬을 사수하다 죽어간 공산 이데올로기적 영웅들을 투영시킨다. 조국이 곧 김일성이라는 신념으로 무장하여 기꺼이 전사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킨 것이다. 한편 '월미도'에서는 별장건물에 있는 지휘소를 보여 준다. 월미도에 이미 설치되어있었던 기반시설을 활용하였다는 것은 이전부터 월미도가 입지적으로 중요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또한 언어 재현 장소는 대사로 영화 속 장소를 부르게 된다. 언어 재현 장소는 제작자가 어떻게 재현하였느냐, 등장인물이 장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내부자-외부자' 관계로 결정된다. 의사전달체계가 어떤 장소와 연관되는지, 등장인물이 내부자 및 외부자로서 장소 특성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등으로 인하여 영화 속 장소가 특정 의미를 지닌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하는 두 편의 영화에서는 대립되는 두 집단을 표현하게 된다. 이 두 집단이 처한 입장은 '탈환'과 '방어'라는 기준에 따라 '내부자-외부자'로 구분 짓게 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하는 연합군이 내부자로, 상륙정보를 알아내려는 공산세력이 외부자로 대치된다. 반대로 '월미도'에서는 수호를 위한 북한군이 내부자로, 상륙을 하려는 연합군이 외부자로 대치된다.

6. 결론

영화지리학에서 장소 재현 연구는 부족하게나마 주목받아왔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영화를 사례로 하여 지리적 현상을 분석하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는 근래에 들어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한 영화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동일한 장소를 서로 다른 영화에서 재현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장소 선택의 공통점과 그 재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동일한 장소를 재현할지라도 실제 장소의 어떤 특성을 어떤 관점으로, 즉, 어떤 특정 포지셔널리티에 의해 재현하였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영화 속 장소가 구현된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데 거점으로서 팔미도가, 청색해안의 시흥, 인천이 표현하는데 섬, 갯벌지대, 산과 민가 등이 묘사된다. 하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우선적으로 방어 지점을 표현하는데 월미도 내에서 포진지, 은폐호, 교통호, 산기슭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즉, 상륙군 관점에서는 인천상륙을 재현하기 위해 육지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하늘, 바다, 육지의 광역으로 선택된다. 또한 방어군 관점에서는 지하의 방공호를 용도에 맞게 나누어 사용하고, 공중에 개방된 교통호와 산, 바다의 영역이 제한된 장소로서 외부환경으로 재현된다.

제작자 포지셔널리티에 따라 영화 속 장소 재현에 차이가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진입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포지셔닝 차이에 따라 다르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군 관점에서 낙동강 전선, 부산, 인천에까지 넓은 영역의 장소가 9월에 걸쳐 표현되었다. 군사정권에서 군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인천상륙작전’은 긴박한 전개와 반공의식에 대한 강한 강박증을 표현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방어군 관점에서 월미도를 중심으로

인천에 이르는 좀 더 좁은 범위의 장소가 3일간에 걸쳐 묘사되었다. 체제이행기에 공산 이데올로기 강화가 주요교시로 사용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월미도’는 사라져 가면서까지 조국애를 지키려는 인물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듯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장소 재현은 각 관점에 따라 상륙군 관점에서 진입에 따른 이동이, 방어군 관점에서 이동 없는 고립이 표현된다. 그 결과는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제작자 포지셔널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남으로서 장소의 성격을 도출하게 해 준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이동과 교류에 초점을 맞춘 장소로 인천¹⁸⁾을 선택하고 재현함으로써 실제 장소를 돌아보게 한다. 인천은 두 번의 양요와 개항을 거쳤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 기능을 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은 그 역사적 환경으로 인한 개방성이 있다. 반면 ‘월미도’는 방어와 고립에 초점을 맞춘 장소로 월미도를 선택하고 재현한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방어군 관점에서 인천 월미도는 서울지역¹⁹⁾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였다. 즉, ‘월미도’는 한국 영토에 속해 있는 섬으로 제작시기 당시를 단절되게 표현함으로써 폐쇄성을 나타낸다.

주

- 1) 영화 장소 메시지는 영화에서 표현된 장소가 제작자 의도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 2) 영화 공간(reel space)은 영화상의 재현을 위해 구성화된 공간으로, 촬영과정에서 다양한 시공간으로 분절화된다. 예를 들어서 정형화된 중산층 거주지인 중대형 아파트는 공간 점유자와 그의 상황(가족구성원, 직업, 가족 분위기)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 3) 장소 이미지는 장소를 경험하고 얻게 된 심상으로서 본 연구에서처럼 매체를 통한 형상화가 관람자 인식에 나타난 결과이다.
- 4) 영화 ‘인천상륙작전’(1965년 개봉)은 조궁하 감독, 편광우 각본, 유성엽 원작, 신영균·김혜정 주연의 작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화 ‘월미도’(1982년 개봉)는 리진우 영화문학 작가 작품이다.
- 5) 실제 장소는 관람자가 영화를 보고 지각하게 되는 영화관,

- 집 등의 생활세계를 일컫고, 실제 장소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제작지역, 영화에서 구현된 장소의 의미를 뜻한다.
- 6) Ducan(1993)은 지도를 장소의 지리적 재현에 대한 일례로 든다. 지도에 표현된 위치에 대한 지식은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망에 놓인다. 즉, 지도는 현실을 일대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제작자의 문화적 필터에 의한 재현으로 해석된다.
 - 7) Power and Crampton(2005)은 'Reel Geopolitics: cinematographing political space'에서 국제관계사,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대한 공간적 함의를 찾는다.
 - 8) 미장센(mise-en-scène)은 '무대에 올린다'는 연극 용어가 영화로 옮겨 오면서 프레이밍과 관련된 영화 제작 행위를 말한다. 첫째로 세팅, 의상, 조명을 둘째로 프레임 내에서 움직임을 말한다(수잔 헤이워드, 2004). 따라서 미장센은 무대에 올리는 장치(세트장, 카메라 앵글 등)로 영화적 설정에 관한 것이다.
 - 9) 전쟁의 지리에 대한 논의는 지리학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The geography of peace and war』에서는 전쟁의 원인으로서는 분쟁지역에 대한 연구, 전쟁 억제(deterrence)의 지정학, 프로파간다 지도화 등과 핵전쟁의 우려와 영향, 그리고 또한 평화 구역·운동·교육 등이 광범위한 주제로 접근되어 있다(Pepper & Jenkins, 1985). 본 논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로서 한국전쟁과 그 이후 분단에서 겪게 되는 이념적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 역사적 사건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텍스트로 영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10) 맥아더 장군이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하달한 "서울의 적 병참선 중심부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계획을 고려하고 상륙지점을 연구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계획이 발전된 것으로 맥아더의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지휘하는 극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 FECOM) 예하 합동전략기획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에 의해 7월 3일에 '블루하트(Blue heart)' 작전으로 입안되었다(조상근, 2010).
 - 11) 포지셔널리티는 『현대 문화지리학』(2011)에 '위치성'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아직 지리학계에서 도입 초기의 개념으로, 포지셔널리티에 함의된 포지션, 포지셔닝 등의 내용을 함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포지셔널리티는 개인의 속성과 대상에 대한 해석에 주관적 편향성을 반영하여 형성된 편향성을 의미한다.
 - 12)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은 연합군이 합류하기 이전 전쟁의 시기를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이 흐르는 전투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영산지역을 재현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영화 속 장소에서 실제 장소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 내러티브 전개가 있는 부산과의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영화에는 단지 하천과 다리만이 나왔지만, 그 다리로 건너 온 고정간점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감시체계가 겹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3) 월미도는 "달의 꼬리"라는 이름을 가진 섬으로 인천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다. 월미도 제방은 인천항을 북쪽과 서쪽에서 둘러싸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는 무수한 북한군 참호들로 요새화되어, 제3대대 소속 400여 명이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초 동해안과 서해안에 연합군 양동작전이 전개되자 북한군은 해안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해안지구 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 14) 현재 인천에는 인천상륙작전 기념비들이 위치해 있다. 이 중에서 월미도는 녹색해안으로 북서쪽 항구의 역할을 보여준다. 월미도는 적색해안의 방파제를 통해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다. 청색해안은 넓은 갯벌로 인해 선박을 멀리 정박시켜야 하고 그 범위 또한 넓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있는 거대한 조각상은 녹색해안 진입을 마친 연합군이 적색해안의 방파제를 넘는 순간을 구현한 기념물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월미도' 영화에서와 같이 전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상륙작전의 시일을 늦추면서까지 수호했던 보루로 방파제가 표현되었다. 마치 한국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과 같이 전쟁 중에 서로의 영토에 갇혀 막다른 장소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북한 영화 '월미도'에서는 실제 지명 인천의 월미도를 사용하여 장소를 표현하였다.
 - 15) 한국전쟁발발 이후 남진하던 북한군은 1950년 7월 3일 시흥에 들어선다. 인천상륙작전 공격 범위에 시흥군 해안도 청색해안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박동찬, 2007), 한국전쟁 당시 시흥은 인천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이명규, 2000: 30).
 - 16) 인천 진입수로인 비어수로는 폭이 1.8~2km이고 수심이 10~18m 정도여서, 만조 시가 아니면 대형 함선의 기동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인천항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한다면 할지라도 항구 전면에는 월미도가 버티고 있어 월미도 점령이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에서 중요하였다(은창일 외, 2010). 월미도는 인천 근처 녹색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적색해안과는 약 2km, 청색해안과는 약 5km 떨어져 있다(김홍영, 2009: 96, 98, 131).
 - 17)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의 경우에도 군의 영화 제작 지원 상황이 잘 드러난다. "웬만하면 전투 실탄을 다 쏘버렸어요 ... 진짜 실탄을 쏘요.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촬영을 했어 ... 폭약, 기름, 휘발유, 디젤 같은 것도 지원 해줬고."라는 증언들이 당시 상황을 알게 해준다(이효인, 2003: 251).
 - 18) 인천에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어 맥

아더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는 자유공원이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과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천은 냉전 체제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 이 전쟁을 다룬 많은 영화들의 배경이 되었다(이현식, 2004).

19) 1950년 9월 6일 북한군 884군 참모부 지령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서울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선언한다. “... 오늘 우리 부대는 이러한 기도를 제때에 발견하고 그들과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며 인천항을 방어하고 우리조국 수도 서울시를 방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분대로서 ...”(박명립, 2002, 전게서). 수도 서울은 북한군에게도 지켜야 할 장소로 동등하게 중요시하게 판단한다.

참고문헌

구동회 등, 2008, 영화 속의 도시, 한울.

국방부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上), 군인공제회.

김홍영, 2009, 6·25전쟁사 6권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박동찬, 2007, 시흥시사 - 시흥의 근현대, 3권 4호, 시흥시.

박명립, 2002,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심승희·양희경·장영진, 2007, 영화 속 지형 이야기, 푸른길.

엄섭일, 1995, 韓國戰爭(上), 한국국방연구소.

온창일 등, 2010,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6·25전쟁 60대 전투, 황금알.

이명규, 2000, 서울·경기 지역 지명 및 방언연구, 한국문화사.

이영민·진중헌·박경환·이무용·박배균 옮김, 2011, 현대문화지리학 주요 개념의 비판적 이해, 논형(Atkinson, David, Peter Jackson, David Sibely & Neil Washbourne, 2005,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I.B Tauris & Co Ltd).

이현식, 2004, “대중문화에 나타난 인천 이미지 연구 - 대중가요 및 영화를 중심으로,” 인천학 연구 제3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151-172.

이효인, 2003, 2003 영화의 고향을 찾아서 인터뷰 자료집, 한국영상자료원.

정의성 옮김, 2010, 한국전쟁과 미국 해군, 한국해양전략연구소(Marola, Edward J., U.S navy in the Korean war, 2007, U.S naval institute Press).

조상근, 2010, Fog of War-인천상륙작전 vs 중공군-, 집문당.

Aitken, Stuart C., 1994, I'd rather than watch movie than read the boo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18(3), 91-308.

Aitken, Stuart C., Brad D. Jopkisch & Christopher G. Boone, 2003, Composition identities: films, families and racism, *Journal of geography*, 102, 2-12.

Aitken, Stuart C., & Deborah P. Dixon, 2006, Imaging geographies of film, *Erkunde*, 326-336.

Alderman, Derek H. & E. Jeffrey Popke, 2002, Humor and Film in the Geography Classroom Learning from Michael Moore's TV Nation, *Journal of geography*, 101, 228-239.

Caprotti, Federico, 2009, Scipio Africanus: film, internal colonization and empire, *Cultural geographies*, 16, 381-401.

Craine, James and Stuart C, Aitken, 2004, Street fighting: placing the crisis of masculinity in David Fincher's fight club, *Geojournal*, 59, 289-296.

Cresswell, Tim & Deborah Dixon, 2002, *Engaging film: geographies of mobility and identity*, Lanham.

Cresswell, Tim,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Dando, Christina, 2005, Range wars: the plains frontier of *Boys don't cry*,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23(1), 91-113.

Dixon, Deborah & Leo Zonn, 2005, Confronting the geopolitical aesthetic: Fredric Jameson, The Perfumed nightmare and the perilous place of third cinema, *Geopolitics*, 10, 290-315.

Doel, Marcus, 1999, *Poststructuralist geographi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Dubow, Jessica, 2009, Representation, in Gregory, Derek et al.,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5th edition)*, Wiley-blackwell, 645-646.

Duncan, James & David Ley, 1993, *Place/Culture/Representation*, Routledge.

Farish, Mattew, 2005, Cities in shade: urban geography and the uses of noir,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 95-118.

Gold, John R. & Margaret M. Gold, 2002, Understand-

- ing narratives of nationhood: Film-makers and Culloden, *Journal of geography*, 101, 261-270.
- Holmes, Grayson, Leo Zonn and Altha J. Cravey, 2004, Placing man in the new west: Masculinities of *The last picture show*, *GeoJournal*, 49, 277-288.
- Hubbard, Phil, Rob Kitchin & Gill Valentine, 2004, *Key thinkers on space and place*, Sage.
- Jancovich, Mark, Lucy Faire & Sarah Stubbings, 2003, *The place of the audience: Cultural geographies of film consumption*, British Film Institute.
- Lukinbeal, Chris, 1998, Reel-to-real urban geographies: the top five cinematic cities in North America, *California geographer*, vol.38, 65-78.
- Lukinbeal, Chris, 2002, Teaching Historial Geographies of American Film Production, *Journal of geography*, 101, 250-260.
- Lukinbeal, Chris, 2004, The map that precedes the territory: An introduction to essays in cinematic geography, *GeoJournal*, 59, 247-251.
- Lukinbeal, Chris, 2005, Cinematic Landscapes, *Journal of Geography*, 101, 250-260.
- Lukinbeal, Chris & Stefan Zimmermann, 2006a, Film geography: a new subfield, *Erdkunde*, 315-325.
- Lukinbeal, Chris, 2006b, Runaway Hollywood: Cold Mountain, Romania, *Erdkunde*, 60(4), 337-345.
- Lukinbeal, Chris & Jim Craine, 2009, Geographic media literacy: an introduction, *GeoJournal*, 74, 175-182.
- Mains, Susan P., 2004, Imaging the border and Southern spaces: cinematic explorations of race and gender, *GeoJournal*, 59, 253-264.
- Mathews, Vanessa, 2010, Set appeal: film space and urban redevelopment, *Social & cultural geography*, 11(2), 171-190.
- Monfredo, William, 2010, Twisted film, or: how I learned to stop the movie and teach the truth, *Journal of geography*, 109, 130-140.
- Pepper, David & Alan Jenkins, 1985, *The Geography of peace and war*, Basil Blackwell.
- Power, Marcus & Andrew Crampton, 2005, Reel geopolitics: cinemato-graphing political space, *Geopolitics*, 10(2), 193-203.
- Rose, Gillian, 1994, The cultural politics of place: local representation and oppositional discourse in two film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9, 46-60.
- Sauer, Carl, 1974, The morphology of landscape, in *Land and life*, edited by Leighly, Joh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15-350.
- Scott, Allen, 2004, Hollywood and the world: the geography of motion-picture distribution and marketing,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1), 33-61.
- Scott, Allen, 2005, *On Hollywood: the place*, the indus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Laurel, 2002, The “Cultural room“ in the classroom: Two Examples of Pedagog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Journal of geography*, 101, 250-260.
- Stoper, Michael, 1989, The transition to flexible specialisation in the US film industry: external economics, the division of labour, and the crossing of industrial divid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3, 273-305.
- 교신: 장윤정,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이메일: tina61@snu.ac.kr, 전화: 880-6322, 팩스: 877-7656)
- Correspondence: Yoon Jeong Chang,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e-mail: tina61@snu.ac.kr, phone: +82-2-880-6322, fax: +82-2-877-7656)

최초투고일 2014. 1. 10

수정일 2014. 2. 9

최종접수일 2014. 2. 15